

세계화와 한국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박 명 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I. 문제 제기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왔다.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를 거쳐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한 이후 20세기 후반부터는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생활과학의 관점에서 볼때 인류발전의 역사는 “가정기능의 분화와 사회로의 전이의 역사”라고 규정할수 있다. 이는 가정기능의 사회전이를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동인이 기술의 진보인데, 정보화 시대의 기술발전은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온 혁명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정보화가 우리 인류를 가정기능의 사회로의 전이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인간의 생활양식에서 근원적인 변화도 초래하게 하기 때문이다. 21세기의 화두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 정보화와 세계화이다. 그런데 정보화와 세계화는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바퀴의 두 축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에 따라 국경없이 넘나드는 정보의 흐름은 세계 각지역의 사고를 동질화 시키고 있으며 세계화 되어가는 각국의 기술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여건은 표준화된 기반조성을 통해 정보화를 가속화 시킴으로써 정보화와 세계화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이기춘 외, 1999)

세계화라는 용어 안에는 보통 끊임없이 팽창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자본의 세계화, 약화되는 단위(민족)국가들의 정치적 자율성 그리고 (민족)국가들의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는 다국적 정치적 공간의 형성,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 실생활체험에 있어서의 동시성과 동공간성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전(全)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의식의 보편화 등 다양한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천선영, 2001)

세계화! 과연 이 세계화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 아니면 빈부격차와 문화격차로 인해 인류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인가? 어느 쪽으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낙관론과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층이 확대되며 사회공동체는 쇠퇴하고 이를 조정하는 사회적비용이 경제적 풍요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비판론과의 팽팽한 대립논쟁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낙관과 비판의 대립은 세계화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에서 연유한다(박길성, 2001).

무한경쟁, 유연성, 이동, 불안정성이 함축하는 사회적 현실의 이중성은 개인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총량적인 부는 증대하지만 개인적이 부는 결코 그렇지 못하거나 거시경제는 낙관적인데 미시경제는 비판적이거나, 극소수에게는 엄청난 이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차 주변화 되고있는 상황은 매우 역설적이다. 세계화는 세계 모든 문화를 동질화 시키는 한편, 세계 모든사람들이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더 넓게 펴뜨릴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Friedman, 2000; 박길성(2001)에서 재인용). 세계화의 역설은 그 구성영역이 균질하게 작동하지 않는점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경제 영역에서는 세계시장주의, 정치영역에서는 세계국가형성, 사회영역에서는 세계시민사회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의 현상은 세계시장주의만이 너무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시대사적으로 볼 때 역전시킬 수 없는 대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정보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세계화에 따라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변화양상과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인과 가정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세계화가 인류의 행복에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개인과 가족이 도도하게 변화해 가는 세계화의 풍랑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근대적 민족국가의 정치체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사회체제 밑에 전통적 유교사상을 근간으로 가정생활을 해 온 한국의 개인과 가족이 이러한 체제를 뛰어넘는 세계화란 큰 물결속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1. 세계화의 개념과 정치경제적, 기버넌스, 문화적영역의 변화

“세계화”란 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학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용어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못하다. 일부에서는 세계화를 단순히 서구화(westernization)이라

고 해석하기도 하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라는 용어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세계화(globalization)를 이해함에 있어 국가의 구분이 소멸되어가는 사회적 동질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에 반해 다양성과 이질성의 심화로 받아들여기도 한다(박광기, 2003).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정치경제적 측면의 논의와 세계화시대의 가버넌스 그리고 문화적영역의 논의로 분류될 수 있겠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에서 출발한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할 경우 국가의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 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시장 자체의 자연적 움직임에 따라서 조절되고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국가의 개입은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일 뿐 아니라 개인의 효용을 증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관점은 강력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국가를 통해 시장을 강화 시켜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즉 강력한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시장을 통해 국가의 개입으로 손상되는 자유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고는 개인주의, 강력한 시장, 그리고 강력한 국가를 기초로 하고 있는 셈이다(조철주, 1999).

여기서 신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관점은 상업주의가 발전하여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인간 개개인이 오히려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아울러 갖게 되며 또한 지식과 교육의 기회도 크게 확대되는 기회를 가져왔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간의 경제발전을 유도하여 인류에 대한 보다 나은 봉사를 가능케 해 줄수 있다고 보는 반면, 인간을 경제개념으로 파악하여 시장의 법칙과 이윤추구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간적 유대관계와 공동체적 의식을 약화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힘을 인정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사회에서는 효율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주의 체제의 해체라기 보다는 교묘한 형태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력이 크지 않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는 반면 오히려 계층간의 갈등과 저발전의 심화로 인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도 가지고 있다(박광기, 2003).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경을 넘어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뿐만 아니라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충돌과 갈등, 또한 중앙정부를 우회하거나 배제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범세계적인 시민운동과 같은 국가 하위체제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활동의 강화 등 전통적인 국가의 주권과 통제로는 기존의 국민국가와 정부중심의 통치형태에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즉 사회의 제요소들이 권력,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목표하고 있는 바를 정책으로 결정하고 이를 제도화 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인 가버넌스 행위가 일어나

게 된다.

가버넌스 행위는 공유된 목표에 의해서 설정되고 있고, 이 공유된 목표는 반드시 법적 또는 공식적으로 정의된 책임과 의무로부터 파생되거나 경찰력에 의해서 강제로는 통치되지 않는다. 즉 기존의 정부의 행위나 정책의 집행이 공식적인 권위나 경찰력 등에 의해 보장되고 통제되는 점과 구별된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결정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없이도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고 규칙을 규제하고 있는 지배체제를 거버넌스라고 본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보면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초국가적인 기업이나 국제적인 금융 중개인을 비롯하여 글로벌 환경단체 등과 같은 글로벌 행위자들은 정부와 시민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시민의 경제적 복지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것은 초국가적인 글로벌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기존의 정부나 정당, 그리고 의회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시민들의 의사결정이나 민주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정치인이나 정부는 시민들에 의해 선거와 기타 수단을 통해 정책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 시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글로벌 행위자들은 통제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세계화의 현실이다(박광기, 2003).

세계화에 따른 문화의 동질성문제는 세계화의 보편적인 과정과 지역화의 특수적인 과정이 세계적인 생활양식과 문화적 민족주의의 갈등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국가간의 인적교류가 증대되고, 매스컴의 발달로 서양문화가 지구 전체에 파급되고 있어 비서양문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본다.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 1993)은 냉전 종식후 이데올로기간의 충돌 대신에 문명간의 충돌을 예언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문명간의 충돌보다 서양문화와 비서양문화간의 충돌이 더 심각하다고 본다(박상식, 1995).

세계적인 생활문화양식은 음식, 패션, 언어, 대중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위성통신 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둔 대중매체의 확장은 영화, 대중음악, 오락시설, 신문, 잡지, TV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 거의 동일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이 문화는 거대한 초국적 규모의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문화 상품은 특정한 정서와 가치기준을 전달함으로써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문화 제국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전세계의 청년문화를 살펴보면 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다 스타일 뿐 아니라 좋아하는 식, 운동, 애호하는 음악, 성에 대한 생각, 이혼, 낙태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마약, 성범죄등의 부정적 측면에서 까지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러 문화를 관통하는 대중문화의 전세계적인 압력은 강력하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부터 빠르고 열광적으로 수용되고 환영받기도 한다. 세계화는 전인류를 대중문화에 몰입시키는데 대중문화가 갖는 위험은 소수집단의 취향과 관심이 무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한 지구촌 문화의 형성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으며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생활양식의 전일화는 개별문화의 존립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문환, 2002). 그러나 한편 21세기는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 또 중심문화와 주변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소수 문화가 각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고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적이 될 것이고 탈이념적이면서도 정치적이 될 것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의 오용과 남용을 경계하는 환경생태적 특징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김성곤, 2001).

2. 세계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

-신자유주의 도입에 따른 경쟁논리의 일반화-

한국의 세계화는 제도적으로 볼 때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의 정책에 의해 비롯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개혁의 새로운 동력으로 세계화를 선택하였다. 즉 자본주의 국가의 보편적 요구사항인 축적과 정당화를 향한 재구조화의 축을 세계화에서 찾고 나섰다.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국정지표, 사회운영지침, 국민의식제정의 중심에 세계화를 설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한 접근이었으나 이념이나 전략의 실체는 대단히 당위적으로 공리적인 것 뿐이었다. 당시 세계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대응의 강조는 쌀 개방 절대 반대에서 쌀 개방으로의 정책적 전환과 재벌지원정책으로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작업으로써, OECD 가입의 논리로서 세계화가 활용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세계화의 이념과는 배치되는 세계화의 추진양상이었으며 오히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중심적 근대성 논의의 답습으로 회귀한 것이었다고 본다(박길성, 2001). 이와 같은 세계화 정책의 심각한 문제는 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세계화로 인해 사회통합의 기제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음에 대한 몰이해였다. 사회관계의 전세계로의 확장은 자유주의적 경쟁논리가 일반화 됨을 의미하면서, 경쟁의 일방성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실함을 의미한다. 뒤쳐진 자들의 삶의 질을 담보해주는 사회 공공재의 공급이 시장원리에 맡겨지면서 사회구성원간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되었다.

IMF 관리체제로 들어서면서 김대중 정부는 IMF관리 체제를 적극 수용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미국의 경제 운영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간주하였고 민주적 시장경제론 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추구는 새로운 이념이나 시대정신에는 손색이 없으나 실행적, 실천적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지 못하였다. 한국사회의 구조조정은 국제 금융자본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외국의 기업, 은행, 금융투자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든 한국시장의 개방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개방은 한국경제를 늘 외환위기 재발의 불안정성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이병천, 1998). 또한 한국사회의

구조조정은 그 동안 오래기간은 아니지만 팽팽한 역학관계를 유지해 온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균형을 잃는 노동에 대한 자본우위의 과정이 되고 말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재벌기업은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고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총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 노동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늘었고 특히 인구 노령화와 더불어 40대 이상의 노동자층이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20-30대의 청년층의 고용이 감소하는 등 청년실업과 중장년 이상의 실업등으로 인해 가계의 소득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도입은 10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세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는 새로운 환경을 모방하려는 모방적 동형화였다면 김대중 정부의 세계화는 외적인 힘에 의한 강요된 동형화 과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한국진출에 대한 반응에 세계화 초기에 나타났던 강한 반감이나 민족적 정서 보다는 세계화 추진속도가 더 빨라져야 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63.9%를 차지하고 있는 등 글로벌 사회운영질서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적응과 수용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박길성, 2001).

-정체성의 변화-

세계화의 초기였던 1997년 이전에 한국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일본보다 훨씬 높은 국가 중심의 공동체 의식을 나타냈던 반면(공보처, 1997) 최근에 와서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 한국인에게는 국가와 사회와 민족이 동일시되어 이들이 마치 자체의 생명력을 갖는 하나의 동질적인 유기체인 것처럼 간주되었고 실제로 민족정체성은 산업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이 열심히 일하게 만든 토대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세계화가 요구하는 사회구성은 이동과 유연성이므로 평생이나 고정된 개념에 기초한 정체성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지도 오래되었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능력이라는 사고가 빠른 속도를 확산되고 있다. 과거 민족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획일성과 동일성을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획일성과 동일성은 쉽게 외부 충격에 무너지고 말았다. 다원적 민주주의 경험이 부족과 동조성의 압력속에서 형성된 동일성과 획일성을 가진 한국인과 한국가족은 자기 자신을 귀속시키는 의미들의 집합을 상실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보인다. IMF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사회문제와 일탈현상은 기존의 생활양식이 더 이상 유의미 하지 않음에 따른 사회 아노미적 징후로 나타나는 정체성의 동요로 볼 수 있다. IMF 초기 관리상태 일때 나타났던 한국인의 즉각적 민족정체성과 애국심은 6년이 지난 현재 이민, 해외유학, 자녀의 미국원정출산, 영어문화권의 적응을 위한 기러기 가족 양산 등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위기와 가족 공동체의 해체-

신자유주의에 의해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개방되고 수입이 자유화 되며 국가가 소유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의 위협으로 이어지게 되면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실직과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이로 인한 가족 및 공동체의 해체현상은 사회적 위기의 한 가운데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인 가족의 해체를 막을 수 없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불러오게 되었다. 정부가 생각하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키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고용을 창출한다는 허구적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은 서구의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장기적인 구조적 실업의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청년실업의 급증이나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적 복지의 기반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던 가족공동체라는 안전망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약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III. 세계화가 한국의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 가족가치의 변화

한국인의 가치관의 근간은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부계중심의 가족원리, 가부장적 가족문화,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근거한 한국인의 가치체계는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가치체계와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한편으로는 가족의 위기로, 또 한편에서는 양성평등과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가족질서의 정착으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가족문화와 가족질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갈등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인의 가치관 체계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조은, 2002).

세계화라는 가치를 내건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변화는 남성중심의 종신직장, 종신노동과 혼자별이 가계의 가정의 구조, 가정생활패턴을 더 이상 유지할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정보화, 도시화, 세계화는 가정의 역할과 성격을 바꾸고 있다(김형국, 1997).

현대 한국의 가족은 가족과 관련된 규범과 가족의 규모, 형태, 기능 사이에 극심한 간극이 존재한다. 가족관계 또한 도구적이면서 정의적이고 봉건적이면서 자본주의적이기도 한 서로 모순되는 가치가 혼재하면서 가족규범과의 심각한 간극을 보여준다(이재경, 1999; 장경섭, 1993). 가족구성에서

보면 노인 단독가구, 독신가구, 비혈연가구, 홀부(모)가구, 그리고 동성애가구 등 이른바 비전형적 가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안호용, 1991: 이재경, 1999: 장현섭, 1993).

한국가구의 소규모화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1990년대에 급속하게 진행되어 지난 30-40년동안 일어났던 소규모화는 전통적으로 부계사회의 '대 잇기'라는 뿌리 깊은 가치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시사한다(양현아, 2002). 예를 들어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53명, 1990년에는 1.59명으로 줄었고 2000년에는 1.47명이 되었다. 평균자녀수도 1960년 5.5명에서 2000년 현재 1.17명으로 1990년대의 한자녀 가정에서 자란 세대가 자녀를 낳게 되는 2020년 이후가 되면 부계중심의 '대 잇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4촌 이상의 친척을 친가와 외가로 구분하는 것조차 무의미해 진다. 따라서 가족, 친족과 관련된 가치 체계의 변화는 불가능해진다. 대 잇기를 고민하기 보다 제도적 결혼에 대한 거부를 더 먼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최근 싱글, 단신부임, 주말가족, 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듀스(Dewks: Double employed with kids) 등의 신조어에서 보듯이 가족에 관한 사고는 무척 유연해 졌으며(성수광·권요경, 1995)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졌을 뿐 아니라 그 사고의 축 또한 개인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이기춘 외, 1999).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도 가족문화에 변화를 주고 있고 부계성씨에 기반한 가족질서와 가족의 가치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조이혼율은 1980년 0.6%에서 1990년 1.1%, 2000년에는 2.5%로 늘었고 결혼에 대한 이혼비는 같은 기간동안 5.9%에서 35.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재혼가족의 증가, 특히 여성 재혼의 증가는 부계혈연중심의 가족개념에 대한 수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혈연'의 개념 자체의 수정을 요구한다. 즉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족 개념자체의 전면적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노령화도 부계가족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노인부양이 국가보다는 개인가구의 책임으로 되고 있는 가족구조에서 전통적 남성중심의 부계가족에서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남성들보다는 노인돌보기의 의무는 전통적으로 며느리에게 지워졌으나 현대에 와서 여성에게 시부모 봉양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됨을 드러내고 있다(최근의 한 판례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시부모 봉양에 대한 요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며느리라 하여 일방적으로 시부모를 의무적으로 봉양하도록 하는 남편의 요구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문화가 변화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전통적 유대요인이 다른 어느 유대 보다 강할 때 충성심이 생기는데(박상식, 1995) (인간집단 중 소속원의 충성심을 유발하고 자발적으로 충성심을 갖게하는 요인 중 전통적 유대-인종, 혈연, 문화, 지역 등 -이 다른 어느 유대-직업, 학력 등- 보다 강하며 이 중 한국의 경우 씨족의 유대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부장제 문화가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 유대요인이 세계화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그 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2. 생활문화의 변화

한국인의 일상생활문화도 자국문화와 외국문화가 뒤섞이는 ‘통합문화’가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 생활과학의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여가생활 등을 살펴보면, 의생활의 경우 이미 세계화된 의생활 수준으로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의생활 문화는 통과례의 일부에서만 그 모습을 보일 뿐이다. 결혼식의 유형을 사례로 보더라도 결혼식에서의 서구적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예식을 거행하는 모습은 서양의 결혼식과 유사하나 결혼식후 폐백은 전통한복을 입고 치루게 되며, 피로연이나 함, 폐백 등과 같은 행사가 서양의식과 전통이 혼합되는 형태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전통적으로 치루는 백일과 돌잔치는 원래 영아사망율이 높았던 과거 아기의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축하했던 행사가 이제는 아기의 엄마와 아빠가 드레스를 입고 호텔이나 식당에서 파티를 여는 신혼부부의 행복을 나타내는 축하파티 형식으로 변질되고 있기도 하다.

세계화는 또한 패션의 시간간격을 없애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다양한 채널의 케이블 TV는 첨단 유행의 도시에서 열리는 첨단 패션쇼를 24시간 방영함으로써 소비자의 눈을 높여 주었고 패션비즈니스계에 개성과 차별화가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전통성을 오래 간직하는 것이 입맛이라고 한다. 식생활에 있어서도 전통적 한식위주의 식생활보다는 다양한 식재료의 글로벌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맛을 추구하게 되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문화를 즐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의 재료특성과 조리특성을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게 재조합하여 음식을 창조하는 퓨전음식의 등장은 세계화시대의 통합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노동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신 가족원 중 부부 모두 일을 하게 되므로 가정 내에서 가족원끼리 만의 식사하는 가정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도시가정의 30~40%가 아침식사를 거르고 출근한다고 한다(박명희 외, 2003). 최근에 결혼한 한 부부의 예를 들어보면 부부 모두 아침식사를 거르고 출근하여 회사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아침요기를 하고 점심과 저녁은 회사 식당에서 해결하는 등 주중에는 거의 가족끼리의 식생활을 하지 못하며 토요일, 일요일 등의 주말에 1~2번 조리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외식의 기회가 많아져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식당을 골라 먹는 식생활패턴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음식에서 보충하지 못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건강보조식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식생활이 이뤄지고 있다(박명희외, 2003).

주생활의 경우도 전통 대가족제도가 핵가족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생활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거양식이 규모나 구조에서 이미 전통성을 벗어나 서구적 생활에 맞는 입식의 유형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핵가족 내에서도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더욱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이동과 직업, 학업 등에 따른 가족의 별거상태가 늘어나면서 성장한 자녀의 경

우 동일 지역 내에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거하거나 직업상 주말부부의 경우 서로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동거하는 형태의 거주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유형의 수율을 변화시키고 있는 등(원룸, 오피스텔의 주거화 등) 가족의 변화에 따른 별거 주생활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의 유형은 가족이 원하는 주거양식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주거양식에 따른 가족 내의 생활이 가족의 의사소통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등 주생활은 세계화보다는 정보화에 따른 변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홍형욱, 1997). 가족 내에서 가족이 서로 공유하던 텔레비전, 음향기기, 전화 등의 시설들이 개별소유와 개별소비화되면서 가족원 내부에서 함께 소비하면서 대화를 했던 의사소통의 방식이 무너지고 가족구성원간의 공유가치가 사라져 가족내부에서의 대화단절로 인한 세대 갈등이 커지게 되는 부정적 영향도 정보화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생활에 있어 세계화는 국산제품과 수입품이란 의식이 없이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소비라는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수요발생도 세계화의 산물이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하는 세계화 브랜드의 출현으로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질화되어 가고 있다. 여가생활측면에서는 교통, 운송수단이 발달하여 나라간 이동이 늘어 사람들은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만 막연히 꿈꿔왔던 세계 구석구석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공유문화로 인해 언어가 달라도 세계인은 동일한 게임을 즐기게 된다.

IV.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른 적응 어떻게 할 것인가

1.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인가?

강자의 논리를 반영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행위자들의 경쟁력이다. 기업 및 국민 각자의 경쟁력의 확보가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 조건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일부의 기업과 국민만이 경쟁력을 갖추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가 가속화될 수록 내부의 간격과 균열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원들을 배려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생존과 발전이 될 것이다.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교육이다. 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집단이 가정이다. 한국인에게는 국가와 사회와 민족이 동일시되어 이들이 마치 자체의 생명력을 갖는 하나의 동질적인 유기체인 것처럼 간주된다. 따라서 국가의 민족의 정체성은 결국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해체는 전통과 정체성의 해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학 등에서는 세계화가 가져온 신자유주의 철학은 가족의 가

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윤리와 철학이 정립되지 않아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보하면서도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좌표는 ‘개방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변창구, 1999). 개방적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정체성을 위한 이념으로 소개된 것이지만 해체위기를 맞은 전통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에 이를 적용하면 이는 ‘양성평등적 열린 가족주의’가 필요하다. 즉 가족원 개인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고 어느 가족원 한사람의 희생의 바탕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닌 민주주의적 가족의 형성, 그리고 배타적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삶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가족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간의 의사소통과 가족 내의 자원배분이 민주적이고 공평하게 배분되었을 때 가족은 각자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생활해 나갈 수 있지만 이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심적 물적 토대가 부족할 경우 가족은 약화되고 해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홍형욱(1997) 우리나라의 핵가족의 특성이 서구와 다른 수정확대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족유형에 맞는 미래주택의 대안모색에서 생태주의와 여성주의 가족공동체 문화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주의란 여권운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유연성, 통합성, 수렴성, 조화, 협동을 의미하는 정신적 여성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것이다. 생태주의는 인간중심적 자연정복과 지배를 거부하는데 페미니즘이 가부장적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남성지배와 여성복종이라는 불평등한 관계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처럼 인간(남성, 폭력)에 의한 자연(여성)정복의 정복의 지배구조를 해체하고자 한다는 가치로서 남녀협동의 공동체 사회로서의 가족공동체사회는 강제적 지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세계화의 복합문화 어떻게 열어나 수용하나?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세계화는 단순히 선진자본주의의 경제 논리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가치가 함께 유입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혹자는 지적한다(변창구, 1999)

20세기초 우리는 근대화를 위해 우리고유의 문화를 버리고 서구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보화, 세계화 사회에서 오늘의 우리는 어떤 문화를 버리고 어떤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분법적 선택이 필요없게 되었다. 즉 민족국가의 개념과 경계가 사라져가는 현재는 자국문화와 외국문화가 뒤섞이는 ‘통합문화’가 생겨날 것이다 (김성곤, 2001).

21세기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민족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트랜스 내셔널 문화’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트랜스 내셔널 문화는 케이블 TV와 인공위성 방송의 멀티 채

널이 안방에 들어오면서 생긴 복합문화를 의미한다. 아이들은 우리것도 보지만 동시에 미국만화와 일본만화, 그리고 때로는 유럽만화도 보고 자란다. 어른들도 매일 CNN뉴스를 보고 BBC방송, NHK방송을 보고 영화 채널에서 중국영화, 일본영화, 미국영화, 유럽영화를 시청하면 살아간다. 글로벌 매체는 국가간의 장벽, 국경에 개의치 않는다. 세계곳곳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민족, 종교, 인종간의 인위적인 구별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몰가치적' 테크놀러지로서 결국 이는 모든 문화와 언어의 차원을 넘어 존재한다. 이는 글로벌 시청자의 '보고 듣는' 두 개의 감각기관을 점유할 수 있는 독특한 힘을 가진 테크놀러지다(마동훈, 1998). 그 수많은 채널과 다양한 문화 중에는 물론 우리것도 있어서 우리문화를 세계로 송출하고 알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접하는 외국문화가 여전히 강대국 중심이라는 점이다(김성곤, 2001). 따라서 이러한 복합문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면서, 세계시민이 되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범세계화의 추세속에서 우리문화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세계화의 표준이 서구적인 기준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는 시점에서 세계화의 증대에 따라 민족적 정체성은 다음의 세가지 변화의 가능성을 갖는다(Hall, 1992). 첫째, 세계적 포스트 모던의 결과로서 민족 정체성은 침식되는 문화적 동질화이다. 둘째 세계화 과정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족적, 지역적, 특수주의적 정체성의 강화이다. 셋째, 민족의 정체성은 쇠퇴하고 있지만 혼혈적인 새로운 정체성의 등장이다(마동훈,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인 의복과 식품, 주거 및 가족생활 소비생활, 여가생활에서 어떤 전통성을 가꾸고 살려낼 것인가와 어떤 것들을 세계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복합적문화로서의 혼혈적 새로운 정체성의 수용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동일시 대상으로 혹은 귀속감을 갖는 대상으로서 국지주의적 민족 공동체와 전지구주의적 세계공동체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화정체성과 세계공동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곧 사람이 하는 일이 되는데 어느 나라건 전략적으로 또는 유연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와 의사결정이 개입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곧 교육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선택은 결국 가정이란 가족 공동체 내에서 가족원 간의 생활체험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생활문화 교육의 장이 곧 가정이다. 따라서 21세기의 가정은 이러한 문화정체성 교육의 장으로서, 실천의 장으로서 그 존재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3. 가족공동체 문화의 육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증대

'가족'이란 인류사회가 창안해 낸 가장 완벽한 공동체이며 정서적 안정과 이해와 애정으로 충만

된 조직유형이라고 하고 있다. (신용하, 장경섭, 1996) 『신뢰』라는 저서에서 후쿠야마 (1995)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이나 집단을 구성하고 상호신뢰아래 서로 협력하는 능력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라고 정의 하였는데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서로 협조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성향, 즉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나 경쟁자 혹은 잠재적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동반자로 인식하는 성향, 혹은 이런 성향을 낳는 문화적 가치, 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공동이익을 강하게 의식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서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힘으로 인식된다. 사회적 자본이 앞의 의미로 정의될 경우 신뢰와 호혜가 핵심요소로 되며 신뢰와 호혜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덕심이 중요한 자원이 됨을 이 정전교수(2003)는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심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배양된다는 것이다. 도덕심의 기본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내지 이타심인데 도덕심의 기본이 되는 이타심도 전염병처럼 전염되거나 모방된다고 한다.

베커(1981)의 이타심의 연구에 의하면(이정전, 2003에서 재인용)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타심 실천은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고 한다. 베커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전형적인 영역으로 가정을 꼽았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접근법은 가정이나 기업을 보는 시각이 가정과 기업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현실을 왜곡 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Bowels &Gintis, 1986) 가정에서 부모는 이타심을 가지고 가족모두의 복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헌신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 마치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즉, 가격기구)이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교통정리 하듯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사랑어린 보살핌이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교통정리 한다.부모가 가족구성원 모두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자신들도 다른가족들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타심이나 도덕심, 착함 심성등은 어렸을 때에 길러지는 것이고 가정이 아이를 기르고 사회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때 가정이야 말로 이타심적인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며 도덕심을 함양하는 장소가 된다. 가정과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대립적이다 가정은 이타심이 실행되고 습득되는 곳이며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영역인 반면, 시장은 이기심이 실행되고 함양되는 곳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영역이다. (이정전, 2003) 그런데 이와 같이 이타심과 도덕심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친자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현대의 핵가족화 현상과 가정의 대부분의 기능이 상품화 되는 상황에서는 친자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기능의 상품화 현상은 부모모두가 맞벌이로 나가지 않을 수 없으며 신자유주 시장주의를 택하는 사회에서의 노동은 엄청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친자시간

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로의 진전은 여가시간조차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고 개인화 하는 현상이 일어 가족간의 대화 시간부족이 가속화 된다.

하지만 가정은 사회적 자본인 이타심과 도덕심의함양의 주된 원천이므로 가정을 잘꾸러나가도록 돕는 것은 해당 가정구성원에게도 이익일 뿐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이익이 되므로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공공재적인 사회적 자본의 증식을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불량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친자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이제 세계화나 글로벌 자본주의는 거부하기 어려운 물결이 되었으며 세계화의 요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와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이데올로기로 주장되는 신자유주의는 우리 인간의 삶에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는 소수의 국가와 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국가와 이에 속하는 국민들을 인간적이지 못한 사회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선택의 자유, 직업의 안정,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권, 사회적 평화, 권위주의의 소멸, 분배의 정의, 교육과 복지의 혜택 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는 자유경쟁에 의해 시장적 기능을 통하여 조절되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사회는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현상 중 가족에의 가치변화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하게 되었다. 물론 현 시점에서 가부장적 가족으로의 회귀를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부장적 가족윤리의 해체를 대체하고 가족원 모두 만족할수 있는 ‘양성평등적 열린 가족주의’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 새로운 가족윤리와 가족문화를 정립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화로 인한 강대국 문화로의 동질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문화로서 우리의 고유한 생활문화를 발굴해 내어 이를 세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또한 필요한 시기이다. 세계시민으로서 통합적이고 복합적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와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고 남의 문화를 인정하는 다원적 사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복합하여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와같은 성숙된 세계인으로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가진 국민으로서 세계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시장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지키고 이를 세계화하려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녹여 우리의 문화로 소화해 내는 복합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가치관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세계화는 영토성과 민족성에 기반을 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 시키지만 국가가 해체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시장경쟁에서 뒤쳐진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을 위해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가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정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가정학회를 중심으로 발의한 '건강가정육성지원법'은 세계화로 인한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 논리에서 해체위기에 놓인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족가치관의 정립과 고유한 생활문화의 세계화, 그리고 다차원적 문화를 수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반드시 법제화 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공보처 (1997). 「시민의식 국제 비교조사」
- 김성곤 (2001). “21세기 문화와 세계화의 과제”,
- 김문환 (2002). “세계화와 문화”, 한국미학회지 Vol.28
- 김형국 (1997). “인간생활과 환경 : 지구촌적 환경변화와 삶의 새가치 양식”, 대한가정학회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 마동훈 (1998). “자본의 세계화와 우리 문화지평의 변화”, 계간사상 1998, 겨울호
- 박광기 (2003).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대한정치학회회보, 10집 3호, p.105-126
- 박길성 (2001). “세계화와 한국사회의변화 : 굴절과 동형화의 10년”, 사회과학 제40권 제1호(통권 52호), p.83-109
- 박명희 외(2003). 『한국의 생활문화』 교문사,
- 박상식 (1995). “세계화란 무엇인가?”, 한국정치학회지, Vol.29, No.1
- 변창구 (199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진로”, 대한정치학회보 제7집 2호(겨울호)
- 성수광·권오경 (1995). 『섬유제품 소비과학』, 교문사
- 안호용 (1991). “한국가족의 형태분류아 핵가족화의 의미”, 『한국의 사회와 역사』
- 양현아 (2002). “한국가족의 움직이는 현재, 굳어있는 전통”, 『창작과 비평』
- 이기춘·박정희·권훈정·김난도 (1999). “정보화, 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과학의 새로운 지평”,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7호

- 이병천 (1998).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반성과 전망”,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 이수훈 (1994). “글로벌 자본주의와 전지구화”, 한국정치학회지, 1994, 제4권
- 이재경 (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 이정전(2003), “가정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경제” 가족해체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대한가정학회
- 장경섭 (1993). “가족, 국가, 계급정치 - 가족연구의 거시 사회 변동론적 함의”,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논문집 제39권
- 장현섭 (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논문집 제39권
- 조 은 (2002). “한국인의 가치형성과 가부장적 문화의 ‘위기’ 한국의 문화 변동과 가치관, 한국사회연구소, 임희섭외 2002, 나남출판.
- 조철주 (1999). “신자유주의와 계획이념의 갈등: 협동적 계획을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 『사회과학논집』 제 20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천선영 (2001). “세계화인가, 세계사회인가 : 사회를 다시 묻는다” 한국사회학 제35집 3호, p.31-49
- 홍형욱 (1997). 가족 공동체 문화 육성을 위한 미래 주택, 건축, 9703
- Hall,S. (1992).“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Hall,S et al.(eds.) Mordernity and its Future, London: Polity
- Samuel Huntington (1993).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72, No.3
- Fukuyama. F (1995), Trust ,New york: Simon & Schuter
- Bowels,S and H.Gintis(1986),Democracy and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